

고강도 교육·훈련 통과한 정예 공군장교 168명 탄생

교육사, 155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전투조종사 도전 황희일 소위 이색 이력 부사관·장교·군무원 거쳐 두 번째 임관

공군부사관·장교, 육군 군무원을 거쳐 다시 한번 공군 장교로 임관한 황희일(조종) 소위를 비롯해 168명의 정예 공군장교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군인화·간부화 단계로 이뤄진 3개월간의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장교로서 갖춰야 할 체력, 정신력, 리더십을 구비했다.

공군은 24일 교육사 대연병장에서 권영민(중장) 사령관 주관으로 제155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임관식에는 이계훈 공군전우회장, 최병채 공군학사장교회장, 이병권 공군인터넷전우회 사무총장, 지역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신임장교 가족·친지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수료증서 및 상장 수여, 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교육사령관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권 사령관은 “선배 전우들이 이룩한 업적과 의지를 이어받아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라는 공군 핵심가치를 내재화해 달라”고 당부한 뒤 “임관 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나가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하는 공군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어지는 국방부 장관상의 영예는 김경래(방공포병) 소위가 차지했다. 합동참모



24일 거행된 공군 제155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

장상은 유은제(보급수송) 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승현(인사교육) 소위가 받았다. 교육사령관상과 기본군사훈련단장상은 박종혁(인사교육)·선재하(공병) 소위에게 주어졌다.

임관식에는 할아버지·아버지에 이어 3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김은지(항공무기정비)·김지환(정보) 소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군 장교로 임관한 권재욱(통역) 소위 등 화제의 인물도 여럿 있었다.

특히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고자 부사관,

장교, 군무원을 거쳐 28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장교의 길을 선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항공전산장비정비특기를 받아 서산기지에서 비행훈련장치반 정비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20년 공군 장교로 임관해 기상특기를 받아 38전투비행전대에서 기상예보관으로 복무했다. 중위로 전역한 이후에는 1년간 육군미래혁신센터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총 11년5개월간 군에 헌신했다.

황 소위는 군 복무 중 조종사의 꿈을 갖게 됐고 항공운항관리학 석사 취득, 전자기능장, 기상감정기사 등 24개의 자격증을 따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황 소위는 “전투조종사가 돼 하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장교에 도전하게 됐다”며 “두 번째 소위 임관이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마음 단단히 먹고 훈련과 임무에 정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투조종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박재준 삼양화학그룹 회장,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5억 원 쾌척

공사 31기 명예졸업생으로 꾸준히 기부 후배 생도들 위해 ‘푸짐한 식사 한 끼’도

공군사관학교(공사)는 24일 “공사 31기 명예졸업생인 박재준 삼양화학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공사발전기금에 5억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박 회장의 인연은 4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회장은 1979년 공사 31기로 입교했으나 가업 승계를 위해 2학년 때 생도 생활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31기 동기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공사에 대한 애정을 이어왔고, 민간 기업인으로



김관호(오른쪽) 공군사관학교장 직무대리가 박재준 삼양화학그룹 회장으로부터 발전기금 5억 원을 전달받고 있다.

부대 제공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도 공사의 명예를 드높이고 모교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

아 2008년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특히 박 회장은 후배 사랑과 공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억3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번 5억 원 추가 기부로 누적액은 총 14억3100만 원에 이르게 됐다. 이로써 박 회장은 공사 기부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한 동문이 됐다.

박 회장이 기부한 공사 발전기금은 생도 해외항법훈련, 항공우주특성화 교육,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사관생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교수·훈육요원 역량 강화, 생도 교육환경 개선, 공사비전 2050

추진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에 쓰이고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공사 31기 동기생으로서 한 해 동안 성실히 학업과 훈련에 임한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푸짐한 식사 한 끼’를 선물하는 취지로 3500만 원을 별도 기부했다.

박 회장은 “공사에서 배운 가치는 제 삶의 뿌리이자 나침반이 됐다”며 “앞으로도 후배 생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호(준장) 학교장 직무대리는 “박 회장의 꾸준한 모교 사랑이 사관학교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최정예 장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임채무 기자

육군, 군사경찰 법집행 교육자료 발간

최근 개정 법령해설·주요 사례 등 수록

육군이 군사경찰병과원들의 법적 소양을 높이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

육군은 24일 최신 개정 법령해설 등을 담은 『군사경찰 법집행 교육자료』를 발간하

고 예하 전 군사경찰부대와 수사단, 학교기관 등에 배포했다.

책자는 △제작 목적 △적용과 근거 △유의사항 △법집행업무 관련 최근 개정된 각종 법률과 시행령, 훈령 등 해설 △주요 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령해설과 다양한

사례를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올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등 군사경찰 법집행활동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된 것과 관련해 해설과 주요 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책자 연구·제작을 담당한 김호(중령) 군사경찰실 근무/법집행계획장교는 “병과 교육과정에 교재로 활용하고 각급 군사경

찰부대의 법집행업무 수행 시 법률 소양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지열(대령) 군사경찰실장 직무대리는 “군사경찰은 군 내에서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법과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계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책자가 병과원들의 법집행활동 관련 소양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